

감성공학 기술 특집

특집 편집기



박 광 석
(서울대학교)

이 번호에서는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감성공학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최근 국내의 기술동향에 대하여 다루었다. 감성공학은 그 분야가 국내에 소개된 것도 10년 이내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게 인식되고 있는 분야이기도하다. 공학이 기본적으로 과학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여 활용하는 것이고, 인간이 그 기술의 최종적인 활용대상이 되는 것이다.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공학적인 관점에서 취급하는 단순하고 비 감성적이 시스템이 아니라, 쉽게 설명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감성적인 시스템이다. 그러나 공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개발한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감성적인 인간을 보다 잘 이해하여야하고 그 특성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여야하겠다. 일반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을 통하여 외부환경을 받아들이는 만큼, 여러 가지 제품이 인간과 접해질 때 그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, 인간에게 개발된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.

본 특집호에서는 국내 감성공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하였다. 감성공학의 전반적인 내용이 회원들에게 전달될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, 본인이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 그 구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본 특집호의 기획에 많은 조언을 주신 표준과학연구원의 박세진 박사와 전북대학교의 김남균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특집호가 감성공학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